

스피노자와 니체 비교*

— 니체의 선구자로서의 스피노자 —

박 삼 열 (송실대)

주제분류 근·현대 유럽 철학

주요어 스피노자, 니체, 자유인, 초인, 일원론

요약문

니체는 1881년 친구 오버베크에게 보내는 엽서에서 스피노자를 자신의 선구자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도대체 스피노자의 어떤 철학적 사유들이 니체가 동지애를 가질 만큼 선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본 논문은 스피노자의 철학적 사유들을 니체 사상과 비교해봄으로써 스피노자가 어떤 관점에서 니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밝혀 보는 하나의 시론(試論)이다. 스피노자와 니체 모두 목적론적 세계관과 이원론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일원론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자연이나 니체의 대지 모두 (1)지향하는 목적이나 의도 없이 무한히 생성, 변화하고 (2)현실 세계 이외의 다른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3)기계적 자연이 아닌 생물학적 현상이 있는 자연이다. 그렇다면 비록 인과 법칙의 문제가 스피노자와 니체 사이의 괴리감으로 존재하지만, 스피노자의 세계관은 니체 세계관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스피노자의 자유인과 니체의 초인은 모두 용기, 관대함, 우정, 고결한 정신 등의 공통된 덕목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피노자를 니체의 선구자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니체처럼 스피노자도 운명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유인과 초인이 가지는 덕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또한 그들 모두 자연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성과 변화의 방식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사랑한다는 점은 자유인이 초인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두 철학자를 비교해 봄으로써 스피노자가 니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탐험해 보았다. 두 철학자의 차이점은 니체 자신

* 본 연구는 송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말한 것처럼 시대, 문화, 학문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 많은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사유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와 니체 모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스피노자와 니체를 비교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을 계기로 국내에서의 스피노자와 니체 비교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담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 시작하는 말¹⁾

나는 몹시 놀랐고 완전히 매혹되었다! 나에게 선구자가 있었다네.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선구자인가! 나는 스피노자를 거의 모르고 있었지. ... 그의 전체적인 경향—즉 인식을 가장 강력한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나와 같을 뿐 아니라, 그의 이론의 다섯 가지 점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네. ... 그는 의지의 자유, 목적론, 도덕적 명법, 비이기적인 것, 그리고 악 등을 부인했어. 설령 차이가 많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주로 시대와 문화, 그리고 학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야. 한 마디로 ... 혼자라는 느낌이 이제 적어도 둘이라는 느낌이 되었네.²⁾

니체는 1881년 친구 오버베크에게 보내는 엽서에서 한 사람의 선구자를 발견했다고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스피노자가 니체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생각하기 쉽다. 우선 스피노자는 17세기 합리론자이다. 그는 자신의 주저 『윤리학』을 데카르트보다 더 철저하게 기하학적 방식에 의거해서 집필하였다. 이에 반해 니체는 비합리주의의 시조로 일컬어질 정도로 합리론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니체는 자신의 책들을 기하학적 방식과는 가장 거리가 먼 형식으로, 즉 어떤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집필했다. 또한 스피노자는 ‘신에 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반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망치를 든 철학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스피노자를 자신의 선구자로 삼기에

1) 이 글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다음과 같은 약자들로 인용된다.

E = the *Ethics* ; A = axiom ; P = proposition ; D = definition ; Dem = the demonstration of the proposition ; C = corollary ; S = scholium ; Post = postulate ; L = lemma ; Exp = explanation ; Pref = Preface ; App = Appendix.

예를 들어 ‘E1D1’은 ‘1부 정의 1’, ‘E2P13S’는 ‘2부 정리 13의 주해’, ‘E2P31Dem’은 ‘2부 정리 31에 대한 증명’을 의미한다.

2) Friedrich Wilhelm. Nietzsche, *Selected Letters of Friedrich Nietzsche*, trans. and ed. Christopher Middlet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177쪽.

주저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니체로 하여금 혼자라는 느낌을 들이자는 느낌으로 바뀌게 했을까? 스피노자의 어떤 철학적 사유들이 니체에게 동지애를 느끼게 할 만큼 선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본 논문은 스피노자의 철학적 사유들을 니체 사상과 비교해봄으로써 니체 자신이 말한 것처럼 스피노자가 어떤 관점에서 니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밝혀 보는 하나의 시론(試論)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피노자와 니체를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비교해 볼 것이다. 먼저 스피노자와 니체의 세계관을 비교해 볼 것이다. 세계관은 스피노자를 니체의 선구자로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철학자가 제안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살펴보면, 자유인과 초인 개념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자유인에 이르는 인식의 세 단계’와 ‘초인에 이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것이다.³⁾ 각각의 비교 항목에서 니체의 사상을 먼저 살펴본 다음, 스피노자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니체 사상의 기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들을 통해서 니체와 스피노자가 얼마만큼 사유의 왕국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스피노자와 니체 비교

1. 일원론적 세계관

(1) 니체의 ‘대지’

플라톤은 세계를 완전한 이데아와 그림자에 불과한 불완전한 현상의 세계를 나눈다. 기독교 역시 세계를 영원한 신의 나라와 온갖 죄악과 허

3)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스피노자와 니체를 비교하는 필자의 독창적인 관점이다. 스피노자와 니체를 비교하는 논문으로는 Richard Schacht, “The Nietzsche—Spinoza Problem: Spinoza as Precursor?”가 있다. Richard의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신, 선과 악, 몸 철학, 감정, 자유의지의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Richard의 논문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물로 가득한 지상의 나라로 나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를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고, 저편의 세계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과 목적론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절대자의 세계, 즉 초월 세계를 만든다. 그리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초월 세계뿐이며, 현실 세계는 가상의 세계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⁴⁾

니체는 서양 철학사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초월과 현실,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적 사고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현실 세계, 생성의 세계만을 참된 세계로 인정한다. 니체는 이를 대지라고 부른다. 대지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현실 세계이고, 삶의 바탕이다. 또한 대지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토대이자 가치의 출처이다. 다시 말해 ‘대지’라는 개념은 이 세계, 생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 전체를 말한다. 이는 자연 또는 세계라는 명칭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니체는 세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즉 플라톤의 이데아론, 기독교적 세계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 등을 부정한다.⁵⁾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부에서 이원론과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배후 세계를 신봉하는 자’로 명명한 후,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인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 분류한다.⁶⁾ 이러한 관점에서는 데카르트 또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초월적 절대자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니체가 제시하는 것은 배후 세계를 신봉하는 자들을 죽음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배후 세계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 대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이원론과 목적론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즉 대지를 복원시키는 것

4) 이윤일, 『현대의 철학자들』 (서울 : 선학사, 2002), 63쪽.

5)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서울 : 책세상, 2006), 86-87쪽.

6) Friedrich Wilhelm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R. J. Hollingdale (Baltimore: Penguin Books, 1967), 58-61쪽;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역, (서울 : 홍신문화사, 1987), 35-39쪽;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승자 역, (서울 : 청하, 1984), 70-73쪽.

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현실 세계의 복원 작업은 데카르트의 후임자인 스피노자에게서 이미 시작되었다.

(2) 스피노자의 ‘자연’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신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초월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분법적 세계관의 허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물체의 이원론적 세계관도 부정한다. 우선 목적론적 세계관이 부정된 것은 스피노자 이전의 근대 과학에 의해서이다. 근대 과학은 자연의 모든 사물들에서 목적이나 의미 등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했다. 이제 자연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유기체적 자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되었다. 물리적 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기계처럼 자연은 인과적으로 질서 지워지고 연결되어 있다. 목적론적 자연관에서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처럼 목적론적 자연관은 폐기되었지만, 세계를 저편과 이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당시의 일반적 생각은 자기 의존적인 존재인 절대자가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법칙을 부여하고, 더 이상 그것의 운행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세계로부터는 이탈해 있다는 이신론(理神論)적 사유였다.⁸⁾

스피노자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철저하게 반대해서 일원론적 세계관을 전개시킨다. 그에 의하면 어떤 대상, 사건, 경험의 고려되든지 그것들은 다른 사물, 사건, 경험들에 의존해 있고, 그것들은 또 다른 무수한 사물, 사건, 경험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의존관계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에 이를 때까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인과적 연쇄가 무한히

7)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88쪽.

8) 데카르트 역시 이신론자로서 초월적 창조자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실체 개념을 신이라는 무한 실체와 이 세계와 관련된 유한 실체(정신과 물체)로 구분해서 이 세계를 초월 세계와 현실 세계라는 두 개의 세계로 구분한다.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독립적인 존재, 다시 말해 자기 의존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신론자들처럼 우주를 초월한 곳에서 절대적 존재를 찾는 신비적 방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는 각각의 사물, 사건, 경험 등의 절대적인 토대를 우주 안에서 찾으려고 시도했고, 그 토대는 다름 아닌 각각의 사물, 사건, 경험 등의 모든 체계적인 통일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전체’를 자기 의존적 존재, 즉 절대적 존재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세계 즉 자연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의 변화 생성이 곧 창조가 된다. 스피노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하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 이외의 어떤 실재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은 자존적이고, 스스로 유지되고, 완전히 실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단일한 자연이다.

이처럼 외부적 창조자와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주장 등의 이분법적 사고들은 스피노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에게 세계는 합리적으로 질서 잡혀져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세계이다. 따라서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다른 존재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그 초월적 존재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또한 무로부터의 창조와 같은 최대의 기적을 인정하는 것은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관한 설명을 더 어렵게 만든다. 스피노자에게 우주 전체는 합리적으로 질서 지워지고, 인과적으로 상호 연결된 하나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 이외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우주를 통일된 하나의 단일체, 즉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⁹⁾

(3) 스피노자는 니체의 세계관의 선구자인가?

두 철학자가 주장하는 하나의 세계 즉 일원론적 세계는 니체의 용어로

9) 스피노자의 ‘자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박삼열,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서울 : 선학사, 2002), 17-38쪽.

는 ‘대지’이고, 스피노자의 용어로는 ‘자연’이다. 그러나 목적론을 폐기하고 일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피노자는 세계관에서 니체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역사적으로 목적론과 이원론적 세계관 모두를 부정하고 자신의 일원론적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세운 최초의 철학자는 스피노자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스피노자를 세계관에서 니체의 선구자로 간주하기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니체는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을 인과적 필연성으로 설명하고,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물리적 인과 법칙만 있을 뿐, 생명 현상이 따로 없다. 그러나 니체는 인과 법칙을 보편 법칙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조의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는 흙처럼 인과 법칙이란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생긴 습관의 산물이고, 주관적 신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¹¹⁾

스피노자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과적 필연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생물학적 원리를 부정하는 기계론적 사유를 따르고 있다면, 그를 니체의 선구자가 삼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스피노자의 자연관을 기계론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자연관은 근대 과학이나 데카르트의 기계론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근대 과학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물체 개념에는 흙이나 돌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과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생명의 유무에 따른 구별, 즉 흙이나 돌 같은 이른바 ‘생명이 없는 것들’과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명이 있는 것들’ 간의 구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죽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든 살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든 크기, 모양, 운동이라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근대 과학의 기계론은 영혼이나 정신과 같은 형상의 원리를 추방함으로써 이 세계를 물질만 존

10)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은 『윤리학』 1부 부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11)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83-85쪽.

재하는 기계적 세계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데카르트는 목적이 없는 자연이라는 기계에 정신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에서 정신을 떼어내어 인간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인간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¹²⁾ 이제 데카르트의 자연은 생명 현상이 전혀 없는 인과 법칙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기계가 된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관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데카르트가 추방한 정신을 다시 자연으로 귀속시켜 데카르트의 물질적 자연을 정신과 물질을 포함하는 자연으로 만들었다. 데카르트가 정신을 자연에서 떼어내어 인간에게만 포함시킨 이유는 인간 정신이 지닌 자유의지가 기계론적 자연관과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인간 정신의 상상이나 착각으로 간주하면서 부정하였기 때문에 기계적인 자연에 정신을 포함시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결과 정신과 물체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자연을 주장할 수 있었다. 정신적 속성을 소유한 자연은 더 이상 기계적인 자연이 아닌 살아 있는 자연이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자연에는 필연적 인과 법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생명 현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 있다”¹³⁾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의 자연관은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기보다 유기체적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자연이나 니체의 대지 모두 (1)지향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무한히 생성, 변화하다는 점, (2)현실 세계이외의 다른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3)기계적 자연이 아닌 생물학적 현상이 있는 자연이라는 점 등은 비록 인과 법칙의 문

12)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더 이상 유기적 통일체가 아닌 순수하게 정신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육체적 부분의 기이한 이원론적 결합체로 여겨진다.

13) E2P13S.

제가 스피노자와 니체 사이의 괴리감으로 존재하지만, 세계관에 대한 두 철학자의 사유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인간의 세 가지 유형

니체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것은 (1)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 (2)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 (3)초인이다. 스피노자 역시 인간을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것은 (1)정념의 노예, (2)능동적 인간, (3)자유인이다. 스피노자는 이 세 유형의 인간을 인식의 여러 단계와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부적합한 인식과 적합한 인식을 구분하고, 이성 에 의한 적합한 인식에 의해 정념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럼 스피노자와 니체가 분류한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살펴보고, 자유인과 초인 개념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1) 니체 :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서 초인으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것은 (1)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 (2)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 (3)초인으로 구분된다.¹⁴⁾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대지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상의 삶에 안주하면서 사는 인간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1부에 나오는 ‘초월적 세계를 신봉하는 자들’,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파리 떼’, 2부에 나오는 ‘천민’, ‘타란툴라(독거미)’ 등의 모습으로 니체가 표현하고 있는 인간들이 여기에 속한다.¹⁵⁾ 비천하기 짝이 없는

14)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정동호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정동호, 「피코, 다윈, 니체」 한국니체학회 편, 『니체 사상의 역사적 조명과 현대적 이해』 (서울 : 세종출판사, 2003), 216-222쪽.

인간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험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또한 그들은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뛰어난 인간들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강자들을 원망하며, 복수심을 품은 채 몸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대항하여 평등을 외치며,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정의는 다수인 자기들에게 있다. 따라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다수의 이름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한 소수, 즉 뛰어난 인간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상은 천민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¹⁶⁾ 그들은 목적론과 배후 세계를 믿으며, 현실과 이상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 있으며, 육체를 경멸하고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¹⁷⁾

니체의 두 번째 인간 유형인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2부부터 나오는 ‘예언자’, ‘두 명의 왕’, ‘학자’, ‘마법사’, ‘교황’, ‘가장 추악한 자’, ‘자발적 거지’, ‘차라투스트라의 그림자’ 등의 모습으로 니체가 표현한 인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에 절망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예언자는 세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리다가 너무 지쳐 죽을 기력조차 없는 인간이다. 두 명의 왕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저주하면서 왕관을 벗어 던진 자들이다. 또한 정신의 양심을 지닌 학자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과학적 지식을 원하지만, 부분에 집착하면서 전체를 놓쳐 버린 자이다. 마법사는 자신의 연기에 역겨움을 느끼게 된 자이고, 유일신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한쪽 눈만 가진 교황은 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최고 성직자이다. 가장 추악한 자는 차라투스트라조차 쓰러질 정도의 추악함으로 신을 살해한 자이다. 자발적 거지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자들에게도 구역질을 느끼는 자로서 사회로부터 도피한 자이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의 그림자는 목표를

15) 같은 논문, 214쪽.

16) 같은 논문, 214쪽.

17) Friedrich Wilhelm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58-64쪽;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역, 35-42쪽;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승자 역, 70-76쪽.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떠돌이, 실험적 삶을 사는 방랑자, 자유로운 정신이다.¹⁸⁾ 그들은 모두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허무주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다.

‘초인’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몰락되어야 한다.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은 기존의 인간의 모습을 버림으로써 초인이 되기 위한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초인은 신의 죽음과 초월 세계가 부정되었을 때 등장한다. 초인은 지상에서의 삶만을 긍정한다. 즉 초인은 초월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 즉 대지에 충실한 인간이다.¹⁹⁾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며, 기독교인들처럼 배후의 세계를 위해 이 땅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존재와 생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가식이나 속임수 없이 대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수한 인간이고, 자유인이다. 초인은 자기 자신을 항상 극복하는 인간 유형으로 인간 하나 하나가 자력으로 성취해야 될 개인적 이상이다. 즉 초인은 현실의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 유형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간 모두가 초인이 되는 것이다.²⁰⁾

(2) 스피노자 : 정념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스피노자에게 첫 번째 인간 유형은 ‘정념의 노예’이다. 정념의 노예는 이 세계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정념의 노예를 다음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자. 내가 길을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 돌 뿌리에 대해 약간의 미운 감정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발을 걸어서 내가 넘어졌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미움은 돌 뿌리와 비교해서 훨씬

18) 같은 논문, 218-220쪽; 고병권, 『니체, 천 개의 눈, 천개의 길』 (서울 : 소명출판, 2001), 226-229쪽.

19) 정동호, 『니이체 연구』 (서울 : 탐구당, 1983), 187쪽.

20) 정동호, 『니이체 연구』 188쪽; 정동호, 『피코, 다윈, 니체』, 221-222쪽.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 뿌리와는 달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발을 걸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 강도가 칼로 내 가슴을 찌를 때 양복 주머니에 있는 지갑 때문에 찔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 지갑에 대한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아 나 대신 찔렸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지갑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역시 그 사람은 지갑과는 달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 대신 찔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부적합한 인식은 인간 상호간에 사랑과 미움 등의 많은 감정들의 원인이 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에 대해서보다 자신들 서로에 대해 더 큰 사랑이나 증오를 가진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수동감정이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부적합한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의 수동 감정, 즉 정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스피노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이성의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나약한 존재로 간주했다.

스피노자의 두 번째 인간 유형인 ‘능동적 인간’은 수동적인 정념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 정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적 인간이 되는 길은 외부 대상에 대해 적합한 인식을 함으로써 능동 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정신은 능동적으로 인식해서 적합한 관념들을 가질 때 모든 수동 감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욕망이라는 능동 감정을 가지게 된다. 능동적 인간은 용기와 관용을 가진다.²¹⁾ 용기는 ‘이성의 명령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관용은 ‘오직 이성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우정을 기반으로 해서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욕망’이다. 용기는 행위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활동이고, 관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활동이다. 어떤 위협에 부딪혔을 때, 침착하게

21) E3P59S.

정신을 가다듬는 등의 행동은 용기의 일종이고, 예의나 온화함 등은 관용의 일종이다.²²⁾ 그래서 스피노자의 능동적 인간, 즉 강한 인격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다만 이해할 뿐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정으로 연결되기에 힘쓰고,²³⁾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추구한다.

스피노자의 세 번째 인간 유형은 ‘자유인’이다. 스피노자는 자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나는 이성의 법칙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자유롭다고 부른다.”²⁴⁾ 이러한 자유인은 신에 대해 지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신에 대한 자유인의 사랑은 ‘세 번째 단계인 직관지로서 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인식은 인간정신에서 최고의 이성적 활동, 즉 최고의 인식이다. 그리고 이 인식의 결과로 최고의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의 원인인 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적인 사랑이 된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상의 행복이다. 자유인은 정신이 거의 동요되지 않고, 자기 자신, 신 및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결코 존재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항상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소유하고 있다.²⁵⁾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 있다.²⁶⁾

(3) 자유인은 초인의 선구자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첫 번째 인간 유형인 스피노자의 ‘정념의 노예’나 ‘니체의 비천하기 짝

22) E3P59S.

23) E4P70D.

24) E3P68Dem.

25) E5P42.

26) E5P38. 스피노자의 ‘정념의 노예, 능동적 인간, 자유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박삼열, 앞의 책, 181-205쪽.

이 없는 인간'은 모두 배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 일반 대중들이다. 두 번째 인간 유형인 능동적 인간과 보다 높은 지체의 인간은 목적론과 이원론적 세계관의 허구를 깨닫는 인간이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스피노자와 니체가 약간 다른 양상을 띤다. 스피노자의 경우, 능동적 인간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부류의 인간들이다. 그들은 보다 적합한 인식을 통해 정념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능동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인간이다. 니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대중적 삶을 버리고, 미망에서 깨어난 사람들로써 시대에 절망한 인간들 즉 왕권을 버린 왕들, 신을 믿지 않는 교황 등이 다.²⁷⁾ 두 번째 유형의 인간에서 스피노자와 니체의 공통점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 번째 유형의 인간이 되기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인간 유형인 스피노자의 자유인과 니체의 초인의 공통점은 그들이 용기, 관대함, 우정, 고결한 정신 등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피노자를 니체의 선구자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니체처럼 스피노자도 운명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점이다.²⁸⁾ 니체의 '운명애'는 한 마디로 영원 회귀에 대한 사랑이다. 시작도 끝도 없이 생성과 변화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영원 회귀에 대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 허무주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체념과 신앙이 있다. 그러나 체념은 허무주의로 끝나게 되고, 신앙은 허구이다. 영원 회귀의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니체가 제시하는 방법은 운명애이다. 운명애는 영원 회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의 필연성과 정당성에 대한 통찰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다. 즉 영원 회귀를 우주와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니체의 운명애이다.²⁹⁾ 그래서 초인은 스스로 결정한

27)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24쪽.

28) 로버트 솔로몬, 캐슬린 히긴스, 『한권으로 읽는 니체』, 고병권 역, (서울 : 푸른 숲, 2001), 174쪽.

29)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24-126쪽.

자신의 운명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 운명에 따른 가장 큰 고통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니체가 제안하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운명애이다.³⁰⁾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자유인은 어떠한가? 자유인의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다른 어떤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모든 사물을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보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정이다. 자유인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 즉 영원의 법칙을 우주의 존재 방식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사랑한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즉 운명애를 가진 자유인은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³¹⁾ 이 상태가 바로 스피노자가 알려주는 인간의 최고 행복이다.

자유인과 초인의 많은 공통점—용기, 관대함, 우정, 고결한 정신, 운명에 등의 덕목—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스피노자의 자유인이 가진 운명애를 신랄한 어조로 비판한다: “스피노자와 같은 인물에서조차 무언가 불가해하며 무시무시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 스피노자로부터 남아 있는 것,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단지 뼈의 울림소리, 수다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신인가? 그들에게 뼈 한 방울도 없다면 ...”³²⁾ 아마 니체는 자유인의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감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추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스피노자의 자유인이 자신의 초인에 비해 많이 연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니체가 초인의 예로 드는 시저의 용기와 예수의 고결한 정신이 합쳐진 이상적인 인간과 스피노자의 자유인은 그리 동떨어진 인간 유형이 아니다.³³⁾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고결한 정신과 더불어 용기를

30) 백승영, 「니체철학 무엇이 문제인가-전통형이상학과 허무이후의 철학」,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서울: 민음사, 2000), 136-137쪽.

31) 자유인은 또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미움, 분노, 경멸 등에 대한 답례로 사랑 즉 관용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한다(E4P46). 더 나아가 그들은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한다.

32)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지식』, 권영숙 역, (서울: 청하, 1989), 347쪽.

자유인의 덕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피노자의 자유인은 연민에 대해 거부한다는 점에서도 니체의 초인과 공통점을 가진다.³⁴⁾ 이처럼 자유인과 초인이 가지는 덕목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또한 그들 모두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대지)의 생성과 변화 방식을 자신의 운명으로 긍정하고, 그 운명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자유인은 초인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신의 세 가지 변화와 인식의 세 단계

(1) 니체의 초인에 이르는 과정 : 정신의 세 가지 변화

니체는 초인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묘사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부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에서 니체는 세 단계를 낙타의 정신, 사자의 정신, 어린 아이의 정신으로 설명한다.³⁵⁾ 첫 번째, 낙타는 전통적 가치에 순종한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굶어진 채 사막으로 달려간다. 낙타의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답습하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는 기존의 가치를 완성된 가치로 간주하고, 의무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짐을 지고 가는 낙타’처럼 그는 가치와 의무라는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대항하지 않는다. 이러한 낙타의 정신을 가진 자는 배후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자신의 생을 부인하고, 신 앞에 머리를 숙인다.³⁶⁾ 그러나 어느 날 낙타는 뒤를 돌아다

33) 정동호, 『니이체 연구』, 181쪽. 니체는 또한 나폴레옹과 괴테의 장점을 한 몸에 합친 이상적인 인간을 초인의 예로 들기도 한다.

34) 로버트 솔로몬, 캐슬린 히긴스, 『한 권으로 읽는 니체』, 175쪽.

35) Friedrich Wilhelm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54-56쪽;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역, 29-32쪽;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승자 역, 65-67쪽.

36)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32쪽;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서울 : 책세상, 2005), 236쪽.

보고, 자기에게 짐을 지운 주인, 즉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이 짊어진 짐은 아무 가치도 없는 ‘허접 쓰레기’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낙타는 분노하고 사자로 돌변한다.³⁷⁾

사자는 낙타의 주인, 즉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용(신)에 대하여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이념, 신앙, 가치에 반발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이다. 이 단계에서 용(신)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사자는 기존의 가치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를 찾은 사자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곧 허탈해 한다. 사자가 한 것은 새로운 가치 창조의 토대가 되는 자유의 쟁취일 뿐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어린 아이는 해낼 수 있다.³⁸⁾

사자의 정신은 어린 아이의 정신으로 변화한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다. 또한 어린 아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으로 묘사된다. 한 마디로 어린 아이는 자연적 삶을 누리는 순진무구한 존재로서 첫 운동이자 자력으로 도는 바퀴다. 이렇게 가치 창조 작업은 어린 아이의 단계에 와야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정신의 상태가 비로소 자유정신의 상태이며, 이런 자유정신은 차라투스트라의 지적처럼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 차라투스트라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자유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초인은 어린아이의 정신처럼 자유롭기 때문에 생성 변화하는 이 세계,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되돌아온다는 영원 회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다음,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를 창조한다.³⁹⁾

37)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32쪽.

38)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33쪽;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236-237 쪽.

39)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33쪽;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

(2) 스피노자의 자유인에 이르는 과정 : 인식의 세 단계

우리는 앞에서 니체의 초인에 이르는 길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것을 보았다. 스피노자의 자유인에 이르는 길은 인식의 세 단계이다. 스피노자는 인식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 번째 인식은 상상에 의한 인식이고, 두 번째 인식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고, 세 번째 인식은 직관에 의한 인식이다. 스피노자의 인간학은 일반적으로 인식론과 평행을 유지한다. 우선 정념의 노예에 속하는 인간 유형은 인식의 첫 번째 단계, 즉 상상에 의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나 필연적 법칙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착각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에 대해서 보다 자신들 서로에 대해 더 큰 사랑이나 증오를 가진다.”라고 말한다. 정념의 노예는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부적합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스피노자에게 첫 번째 인식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인식, 즉 이성에 의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이 두 번째 인식은 현상들이나 사물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개념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성의 도움에 의해 이 공통개념들을 토대로 사물들의 법칙들과 연결된 관계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이성에 의한 인식은 다름 아닌 과학적 인식의 단계이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인과 관계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가진 능동적 인간은 자유의지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념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나 이성에 의한 인식은 전체로서의 우주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다. 이 과정은 세 번째 종류의 인식 즉 직관에 의한 인식만이 수행할 수 있다.

직관은 어떠한 추론과정을 거치고 않고 한 번에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직관에 의한 인식을 전체로서의 우주체계에 대한

적 긍정의 철학』, 237쪽; 정동호, 『피코, 다윈, 니체』, 222쪽.

인식에 적용시킨다. 즉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직관지는 자연 전체와 자연 법칙(즉 신적 본성의 필연성 또는 영원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이다. 두 번째 인간 유형인 능동적 인간은 아직 신적 본성의 필연성, 즉 영원의 법칙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정념의 노예로 타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인은 직관지에 의해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정념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자유인은 정신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생긴 최고의 정신적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의 원인인 신을 향한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사랑은 최고의 인식인 직관지에 기반을 둔 완전히 능동적 사랑, 즉 지성적 사랑이다.⁴⁰⁾

(3) 자유인에 이르는 과정은 초인이 되는 과정의 선례가 될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자유인에 이르는 과정은 니체의 초인이 되는 과정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니체는 초인이 되는 과정을 낙타, 사자, 어린 아이를 비유로 들어 상징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를 스피노자의 자유인이 되는 과정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이나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정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신의 자기반성과 교정을 통해 대지의 뜻에 충실 할 때(스피노자의 용어로는 자연의 법칙, 즉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운명을 사랑하는 초인 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⁴¹⁾

스피노자는 정신을 교정하는 과정이 이성의 적합한 인식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니체는 정신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니체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성의 인식에 의존할 것이다. 물론 스피노자의 이성과 니체의 이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

40) 스피노자의 인식의 세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박삼열, 앞의 책, 174-177쪽; 인식의 세 단계에 대한 논의는 『윤리학』 2부 정리 40의 주해 2와 『지성개선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세 번째 인식의 단계인 직관지는 주로 『윤리학』 5부에서 다루어진다.

41)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133쪽.

다. 스피노자의 이성은 본유적으로 참된 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참, 거짓을 변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니체에게 이성은 본유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성에 의해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니체에게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성을 자기 근원적이지도 않고 자립적이지도 않고, 다른 것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도구로 간주한다.⁴²⁾ 이성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성은 정신의 세 가지 변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을 거쳐 어린 아이의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도구적 이성의 도움으로 목적론적 세계관과 이원론적 세계관의 허구를 깨닫고, 기존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니체에게 이성은 우리의 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도 이성이 이러한 도구적 역할을 할 때가 있다. 물론 스피노자의 이성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지만, 정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과정에서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때의 이성은 진리를 인식하거나,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근원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로 작용하는 기능적 이성이다. 정념의 노예는 수동 감정을 소유하고, 자유인은 능동 감정을 소유한다. 수동 감정, 즉 정념은 부적합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념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성에 의한 적합한 인식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처럼 이성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이용함으로써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자유인이 되는 길이다.

스피노자의 자유인이나 니체의 초인이 되는 과정의 공통점은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는 데 있다. 스피노자나 니체에게 육체는 자연의 질서에 이미 순응해 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이러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 스피노자의 경우,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 지

42) 같은 책, 79쪽.

성과는 달리, 자연의 질서에 대해 혼동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 의지의 착각 속에서 정념의 노예가 된다. 니체의 경우 정신은 대지가 아닌 초월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를 동경하는 등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신은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생으로부터 일탈하게 만든다.⁴³⁾ 따라서 스피노자는 『지성개선론』에서 정신의 교정을 역설하였고, 니체 역시 정신의 자기반성과 교정을 통해 자연의 질서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정념의 노예나 니체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 모두 자유인과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유인과 초인 모두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인간이다.⁴⁴⁾ 자유인이나 초인 모두 정신적인 자각을 통한 외유내강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구체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지만, 자유인에 이르는 과정은 초인이 되는 과정의 선행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I. 맺는 말

스피노자는 사후 100년 동안 죽은 개 취급을 받았고, 그 후에도 철학적 이방인, 야만적 별종으로 불리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주류에서 추방된 고독한 철학자 니체가 스피노자와 동지애를 느낄 만한 내용들이 스피노자 사유의 왕국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스피노자와 니체 모두 목적론적 세계관과 이원론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하나의 세계(자연 또는 대지)만을 인정하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세계관에서 니체의 선구자가 되기에는 하나의 문

43) 같은 책, 131-132쪽.

44) 같은 책, 131, 134쪽.

제점이 있다. 스피노자는 근대 기계론의 인과법칙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의 자연은 인과적 네트워크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현상이 없고, 인과법칙만이 존재하는 근대 기계론의 자연 개념을 니체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스피노자와 니체는 세계관을 전혀 공유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추방한 정신을 다시 자연으로 귀속시켜 데카르트의 물질적 자연을 정신과 물질을 포함하는 살아 있는 자연으로 만들었다. 그의 세계관은 기계론과는 구별되는 생명 현상이 존재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자연이나 니체의 대지 모두 (1)지향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무한히 생성, 변화하고 (2)현실 세계이외의 다른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3)기계적 자연이 아닌 생물학적 현상이 있는 자연이다. 그렇다면 비록 인과 법칙의 문제가 스피노자와 니체 사이의 괴리감으로 존재하지만, 스피노자의 세계관이 니체 세계관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스피노자와 니체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니체는 인간을 (1)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 (2)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 (3)초인으로 구분한다. 스피노자 역시 인간을 (1)정념의 노예 (2)능동적 인간 (3)자유인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자유인과 초인의 공통점은 그들이 용기, 관대함, 우정, 고결한 정신 등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피노자를 니체의 선구자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스피노자도 니체처럼 운명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니체의 초인은 영원 회귀를 우주와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즉 결정된 자신의 운명에 따라 고통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운명애를 가질 것을 니체는 제안한다. 스피노자의 자유인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해 운명에 대한 사랑을 한다. 자유인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 즉 영원의 법칙을 우주와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운명에 즉 신(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해 자유인은 세상

의 어떤 고통이나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즉 운명애가 감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인과 초인이 가지는 덕목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또한 그들 모두 자연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성과 변화의 방식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사랑한다는 점은 자유인이 초인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다.

또한 스피노자의 자유인에 이르는 과정인 인식의 세 단계는 니체의 초인이 되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니체는 초인이 되는 과정을 정신의 세 가지 변화, 즉 낙타의 정신, 사자의 정신, 어린 아이의 정신으로 역시 세 단계로 설명한다. 스피노자나 니체에게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의 자기반성과 교정을 통해 운명을 사랑하는 초인 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이성을 자기 근원적이지도 않고 자립적이지도 않고, 다른 것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도구로 간주한다. 이성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성은 정신의 세 가지 변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도 이성이 이러한 도구적 역할을 할 때가 있다. 물론 스피노자의 이성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지만, 정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성은 감정을 통제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정념의 노예나 니체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 모두 자유인과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유인과 초인 모두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스피노자의 ‘자유인에 이르는 과정’은 니체의 ‘초인이 되는 과정’의 선행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철학자를 비교해 봄으로써 스피노자가 니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탐험해 보았다. 필자의 관점에서 두 철학자의 차이점은 니체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시대, 문화, 학문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 많은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사유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와 니체 모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주제들 이외에도 스피노자와 니체 사상은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는 주제들—신, 선과 악, 자유의지, 이기주의, 감정론, 몸 철학 등—이 다양하게 있다.⁴⁵⁾ 아직 국내에서는 스피노자와 니체를 비교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을 계기로 국내에서의 스피노자와 니체 비교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담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45)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I. 1차 문헌

- Nietzsche, Friedrich Wilhelm. *Thus Spoke Zarathustra*, Translated by R. J. Hollingdale. Baltimore: Penguin Books, 1967,
- _____,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역. 서울 : 홍신문화사, 1987.
- _____,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승자 역. 서울 : 청하, 1984.
- _____, 『즐거운 지식』, 권영숙 역. 서울: 청하, 1989.
- _____, *Selected Letters of Friedrich Nietzsche*, Edited and translated by Christopher Middlet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 Spinoza, Baruch. *The Chief Works of Benedict de Spinoza*. 2 vols. Translated by R. H. M. Elwes. London: Chiswick Press, 1883.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Vol. 1. Edited and translated by Edwin Curl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Spinoza Complete Works*. Edited and translated by Samuel Shirley.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2
- _____, *Ethics*. Translated by James Gutmann. New York and London: Hafner Press, 1949.
- _____, *A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A Political Treatise*. Edited and translated by R. H. M. Elw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1.
- _____, *Spinoza Opera*. 4 vols. Edited by Carl Gebhardt. Heidelberg: Carl Winter, 1925.

II. 2차 문헌

- Richard Schacht, "The Nietzsche—Spinoza Problem: Spinoza as Precursor?" in Y. Yovel (ed.) *Desire and Affect -Spinoza as Psychologist*

(Spinoza by 2000, v. III), Leiden: Brill, 2000, 167-186쪽.

고병권, 『니체, 천 개의 눈, 천개의 길』 서울: 소명출판, 2001.

로버트 솔로몬, 캐슬린 히긴스, 『한권으로 읽는 니체』, 고병권 역. 서울 : 푸른 숲, 2001.

박삼열,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서울: 선학사, 2002.

백승영, 「니체철학 무엇이 문제인가-전통형이상학과 허무이후의 철학」,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서울: 민음사, 2000.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서울 : 책세상, 2005.

이윤일, 『현대의 철학자들』 서울: 선학사, 2002.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서울 : 책세상, 2006.

정동호, 「피코, 다윈, 니체」, 한국니체학회 편. 『니체 사상의 역사적 조명과 현대적 이해』 서울: 세종출판사, 2003.

정동호, 『니이체 연구』 서울 : 탐구당, 1983.

한국니체학회 편, 『니체 사상의 역사적 조명과 현대적 이해』 서울: 세종출판사, 2003.

김상환 편,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서울: 민음사, 2000.

Spinoza and Nietzsche:
Spinoza as Precursor of Nietzsche

Sam-Yel, Park

In this essay, I investigated in what sense we can take Spinoza as precursor of Nietzsche by comparing Spinoza's philosophy to Nietzsche's thought. Both Spinoza and Nietzsche maintain monism on the condition of denying teleology and even mechanism. Furthermore, Nietzsche's 'over man' has, like Spinoza's 'free man', the virtues such as highmindedness, courage, tolerance, and friendship. Besides, they both deny freedom of will, the moral world-order, the unegoistic, and evil. In this way, both of them have the same framework, and they ultimately give us the same message; their divergences are, as Nietzsche said, due to differences in time, culture, and science. Yet, in Korea, the research on Nietzsche's relation with Spinoza has not been attempted. Regarding this situation, I hope my essay would, within the country, motivate people doing more fruitful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subject

Key Words: Spinoza, Nietzsche, free man, over man, monism

박삼열 e-mail : parksamyel@ssu.ac.kr